독자투고 지난주 대학주보 세시봉을 읽고

순결의 이중성 지적 사실과 달라 무조건적 종교비판은 자기 아집

지난 11월1일자 대학주보 세시봉 란에 난 "정치적 의도를 순결이니 정결이니 하는 말로 치장하여 여성들을 또다시 순결 이데올로기에 찌들게 하는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하고자 몇자 적는다.

먼저 대학주보에 이러한 글이 나오기 전에 경희학우들에게 신순결선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부족했음을 사과드리고 싶다. 지난 10월 4일부터 두차례에 걸쳐 '화장실안에서 꼭 보기좋을 정도의 위치에 신순결선언 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책자를 1천부 정도 제작 도서관의 학생회관에 배포, 새로운 각도에서 순결 다시보기를 펼쳐온 ICSA (국제 기독학생연합)의 한 일원으로서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신순결선언에 대해 말하고 싶다. 순결이란 과거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기 위해 사용해 왔던 지배이데올로기의 일환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과도 같다. 그러나 그중만 사회 각계뿐 아니라 마지막 양심의 보루인 대학에서도 오린지 죽이니 정결죽이니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현실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 지는 것은 왜일까? 이제 아무도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나서서 이야기 하지않으려 한다.

우리는 총여학생회장을 만나 신순결선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올바른 대학내의 성의식 정착을 위해 함께 토론하기로 했으며 경희대 학우들의 성의식 조사를 위한 설문작업을 진행시킬 예정에 있다. 또 ICSA에서는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성과 순결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분들을 모셔 학우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세계평화여성연합은 남괴과 아내가 하나되어 참가정을 건설, 이상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운동을 전세계적으로 펼쳐고 있는 단체이다. 세계평화여성연합의 한학자 총재는 이런 내용으로 UN, 미국회, 일본국회등 한국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세계 2백56개 도시에서 연설하신 분이다.

물론 그분은 문선명 선생의 부인이시다. 그러나 이번 강연회는 전도를 위한, 통일교 신자들을 위한 강연이 아니었으며 경희학우들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참가정과 평화세계의 메세지를 듣고자 한이었다.

일부 편협한 종교적 아집에 빠진 기독학우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각국 지도자들이 모인 UN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모두 통일교 신자이거나 사탄의 꾐에 빠진 어린 양들이란 말인가? 평화적인 강연개최를 위한 주최측인 ICSA, 학우들의 대표기구인 총학과 동아리 연합회, 학교측 담당기관인 학생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력저지로 12게나 되는 다수 기독동아리의 훼꼬는 같은 경희학우로서 분노를 넘어 슬픔과 부끄러움의 대상이었다.

경희학원내에서의 모든 집회는 기독학우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불교나 증산도 등 타 종교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는가? 우리는 경희의 양심에 묻고 싶다. 이단이라는 종교적 색안경으로 행해진 기독학우들의 종교탄압은 마치 중세시대의 마녀화형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AIDS초청강연, 안중근 성지계승 사업, 신순결선언 등의 활동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될 진정한 학원의 민주와 조국의 미래를 위한 ICSA의 노력에 대해 종교적 탄압을 강구하기 전에 기독학우들은 종교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경희학우들에게 어떻게 진실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봉사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를 바라고 싶다. 더불어 대학주보를 비롯한 8천5백 경희학우들에게 누구에게 선가 전해들은 말이나 근거없는 중상모략이 아닌 대학인의 지성과 양심으로 직접 확인하고 열려진 마음으로 앞으로 진행되는 ICSA의 모든 활동을 지켜봐 주기를 전심으로 당부드린다.

김 민 지
〈국문·4〉

발전기금 출연내역 및 명단

△박경석(공대 기계공학과 교수) : 3백만원 △이진수(외대 영문과 교수) : 1백50만원 △송미섭(사범대 교수) : 5백만원 △박주석(경영대 경영학과 교수) : 1백50만원 △정지창(의대 외학과 교수) : 2백만원 △권신한(산업대 농학과 교수) : 2백만원 △노영덕(산업대 농학과 교수) : 1백50만원 △이종락(산업대 임학과 교수) : 1백50만원 △전상근(산업대 임학과 교수) : 1백50만원 △김광재(산업대 조경학과 교수) : 1백50만원 △안문원(산업대 조경학과 교수) : 1백50만원 △김동찬(산업대 원예학과 교수) : 1백50만원 △오성기(산업대 식품가공학과 교수) : 1백50만원 △조재선(산업대 식품가공학과 교수) : 1백50만원 △김병용(산업대 식품가공학과 교수) : 1백50만원 △장문호(산업대 노예과 교수) : 1백50만원 △장진(산업대 노예과 교수) : 1백50만원 △임현혁(산업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 1백50만원 △김규현(산업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 1백만원 △장미경(산업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 1백만원 △김선방(치과대 교무주임) : 1백만원 △김수자(문리대 화학과 교수) : 2백만원 △이항련(의대 간호학과 교수) : 2백만원 △박연호(법대 행정학과 교수) : 3백만원 △유기현(정경대 경영학과 교수) : 2백만원 △안회석(치과대 직원) : 50만원 △김성중(치과대 직원) : 50만원 △정순홍(중앙도서관 직원) : 42만원 △플돈회회원 일동 : 1천만원 △김정수(사회대 경영학과 교수) : 2백만원 △한한수(사회대 경영학과 교수) : 1백50만원 △박기원(정경대 경영학과 교수) : 3백만원 △원용순(의대 영문과 교수) : 3백만원 △김전수(체대 체육학과 교수) : 2백만원 △방대열(한일섬유대표) : 3백만원 △권순자(문리대 화학과 교수) : 2백만원 △최원익(경영학과 81학번) : 1백5만원 △최상진(문리대 국문과 교수) : 1백만원 △신현종(문리대 물리학과 교수) : 1백20만원 △김열(문리대 물리학과 교수) : 1백20만원 △장진(문리대 물리학과 교수) : 1백20만원 △이은태(공대 토목공학과 교수) : 1백50만원 △백성남(공대 기계공학과 교수) : 2백만원 △안주옥(공대 토목공학과 교수) : 1백50만원 △정석진(공대 화학공학과 교수) : 2백만원 △이기동(체과대 체육학과1년 이재용의 父) : 1백만원

이상 10월30일부터 11월5일까지의 접수내역임.

※정정 : 대학주보 10월25일자 발전기금출연내역 및 명단중 '조선제(교육부 과학교육과장)'에서 과학교육과장을 과학교육국장으로 바로잡습니다.

◇노동운동의 신호탄

지난달 31일, 올 하반기 노동운동의 신호탄이 서울도심에서 쏘아올려졌다.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노동법 개정, 근로자 파견법·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정반대를 위한' '93전국노동자대회'가 효창운동장에서 전국노조대표자회의(전노대) 주최로 열린 것이다. 국회 중앙상임위가 열리는 시기에 맞춰 예년보다 10여일 앞당겨 실시된 '93노동자대회는 상반기 노동자들의 투쟁의지를 결집시켜 새정부 출범후에도 실시되지 않는 노동악법개정을 위해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을 모아내는 장이 되었다. (신철식 記者)

朔風

깜짝 개혁쇼, 방향은 어디로?

어떤 사람들은 김영삼 정부의 개혁을 깜짝 쇼에 비유하기도 한다. 공직자의 재산 공개, 금융실명제 전격실시 등 김영삼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는 과연 깜짝 쇼에 비길만 했다. 전국민의 시선은 일거에 김영삼 대통령을 주시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며 군부독재 정권과 '야합'했을 때 등돌렸던 사람들마저 김영삼 대통령의 추진력에 감탄을 아끼지 않았고, 김영삼 대통령의 인기는 90%를 웃돌정도로 수직 상승했다. 어디 그뿐이었던가. 빌리비전이 단재주는 우상에 짝사랑의 연정을 던지기 일수인 청소년 인기조사에서조차 인기연예인을 제끼고 김영삼 대통령이 단연 정상에 올랐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지 불과 8개월밖에 지나지 않는 시점에 개혁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답답하다. 10여년이 넘게 질질 끌어오던 금융실명제와 같이 파격적인 개혁 조치를 실시한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들은 왜 김영삼 정부에 대해 의심어린 눈초리를 던지며 답답해 하는 걸까? 결본부터 말하자면 김영삼 정부가 겉보기로는 전국민이 깜짝 놀랄만한 개혁 조치를 실시했지만, 원론에서 방향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는 김영삼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국민에게 호소했던 고통분담론에서 찾을 수 있다.

신한국을 건설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고통분담론은 김영삼 정부 스스가 취한 조치를 통해 허구에 찬 이데올로기 공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그 첫번째 증거는 엄중전문화 정책이다. 그간 우리나라 재벌은 금융특혜, 세금 특혜 등 모든 특혜를 골고루 받았다. 그러나 엄청난 특혜속에서 커온 재벌기업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 채 땅투기, 증권투기를 일삼고, 청리과 절탁하여 우리 사회에 온갖 부패와 부정의 곰팡이를 심어왔다. 이들이야말로 개혁의 대상중의 가장 일차적인 대상이었다.

그러나 현 정권은 개혁의 대상으로 삼기는 커녕 재벌기업이 개혁을 빙미삼아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한국 기업을 세계 일류 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미명아래 전에는 73개 기업에 불과하던 재벌그룹의 주력기업을 116개로 늘려주고, 재벌그룹이 갖고 있는 비주력기업을 정리하면 주력기업수는 140~150개로 늘어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되면 금융번에서 특혜를 받고, 각종 규제조치조차 받지 않아도 되는 30대 재벌그룹이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이득을 보게 되고, 재벌 그룹의 경쟁력 집중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고통분담론을 들으며 앞으로는 심각한 표정을 짓지만, 뒤돌아서서 웃을 판이 된 게 바로 재벌들인 것이다.

두번째 증거는 노동법 개정 유보등 노동자에 대한 고통 전가다. 역대 군사독재 정권 아래서 노동자만큼 철저하게 고통을 전담한 집단은 없었다. 노동자들은 자기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조금만 움직여도 무자비한 폭력을 앞세운 공권력의 탄압과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언론의 돌팔매를 맞아 만신창이가 되곤 했다.

그렇다면 이제 노동자의 고통을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고통분담론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올 정기국회에서 노동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거듭 밝혀온 김영삼 정부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갑자기 노동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겠다며 노동법 개정을 유보시켜 버렸다. 고통분담론이 역대 군사정권에서 즐겨쓰던 노동자 고통전담론임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김영삼 정부는 거역해야 할 것이 있다. 깜짝 쇼가 일시 많은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는 있다. 그러나 깜짝 쇼는 그 특성상 쇼가 보다 높은 차극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깜짝 쇼로 국민의 시선을 계속 모으기 위해선 보다 자극적인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김영삼 정부에게 그런 정책이 별로 남아 있을 것 같지 않다. 깜짝 쇼가 아닌 진정한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어쩐이야말로 해방이후 최초이자 최후가 될 지도 모를 개혁의 호기이므로.

〈준〉

알림대

교수동정

이주희 교수 방미

【서울캠퍼스】▲이희주(의대·외학)교수=11일부터 19일까지 학회참석차 프랑스방문 ▲곽형우(의대·의학)교수=11일부터 22일까지 학회참석차 미국방문 ▲조병수(의대·의학)교수=11일부터 23일가지 학회참석차 미국방문 ▲이경희(사대·교직과)교수=15일부터 20일까지 LA한국교민회 행사참석차 미국방문

【수원캠퍼스】▲강정오(사회대·무역)교수=14일부터 17일까지 학술회의 참석차 일본 방문 ▲전만학(사회대·국제관계)교수=14일부터 17일까지 학술회의 참석차 일본 방무 ▲이주희(공대·건자)교수=13일부터 18일까지 학술논문 발표차 미국 방문 ▲조능호(공대·전산)교수=13일부터 21일까지 학술회의 참석차 미국 방문

등 기

등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박도준(국문·2)▲이현주(국문·3) ▲이은정(영문·4) ▲신광하(영문·2) ▲김효진(사학·2) ▲김하정(지리) ▲선재환(화학) ▲전유문(화학·4) ▲양철용(법학·3) ▲남일(법학·4) ▲이영진(법학·3) ▲박미선(신방) ▲이승훈(신방·3) ▲조병하(경영·3) ▲최의주(경영·4) ▲류용재(무역·2) ▲남동은(무역·2) ▲조건배(회계·4) ▲한영주(회계·4) ▲김종관(회계·3) ▲최동진(회계·4) ▲오은정(영교·4) ▲조정민(영교·4) ▲김소령(미교·2) ▲최태윤(미교·4) ▲김연하(가관·4) ▲최윤희(식영·4) ▲전미영(의상·2) ▲신현경(의상·2) ▲정주희(의상·4) ▲윤수천(의예·2) ▲김호연(의예·1) ▲박지영(의예·1) ▲한명수(간호·4) ▲조상원(치의학·2) ▲김미경(치의학·4) ▲이중탄(작곡·4) ▲박승진(기악·3) ▲전건영(음대·2) ▲심재현(체육) ▲김복희(체육·3) ▲이창홍(산의원·408) ▲조찬단(삼의원·301) ▲이문호(삼의원·523)

【수원캠퍼스】▲김미자(중문이·1) ▲이호준(중문·3) ▲김영희(행정·4) ▲권세웅(회계·2) ▲박길순(경영·4) ▲배재철(무역·1) ▲장세헌(무역·3) ▲장민수(사회·2) ▲정성규(물리·3) ▲이정환(화학·2) ▲김기승(환경) ▲이길우(우주·2) ▲김성환(기계) ▲고봉식(섬유·3) ▲김재현(섬유·4) ▲이명재(전자·3) ▲곽창권(전자·1) ▲이종상(전자·4) ▲김형동(전자·4) ▲김장수(건축·4) ▲조율호(건축·3) ▲정경우(건축) ▲박정현(건축·1) ▲박상준(토목·4) ▲정민규(토목·4) ▲이창원(토목·4) ▲정욱환(토목·1) ▲강지단(토목·3) ▲유석준(토목) ▲이건(토목·3) ▲박대호(산공) ▲김정훈(산공·4) ▲김도훈(산공·4) ▲성병옥(원자·3) ▲유성종(원자) ▲강신철(원자·4) ▲이상훈(원자·3) ▲송은석(원자·2) ▲박정재(전산·4) ▲반영근(전산·1) ▲임창순(전파·1) ▲유성화(농학·2) ▲서원석(농학) ▲신용상(임학·2) ▲이정민(임학) ▲김정기(조경·3) ▲신정권(토예) ▲이민학(산다) ▲정강옥(체육·4) ▲장영태(태권도·3) ▲정진섭(태권도·4) ▲신수정(애지원·538) ▲임창진(애지원·211) ▲윤소영(애지원·439) ▲만화동신

습 득

분실자 편집실로

【서울캠퍼스】◇학생증=▲김태일(수학·90) ▲김선실(식영·93) ◇검정 가죽지갑=김수정

분 실

습득자 편집실로

【수원캠퍼스】▲김유창(건축·93)=갈색 가죽지갑(학생증, 주민등록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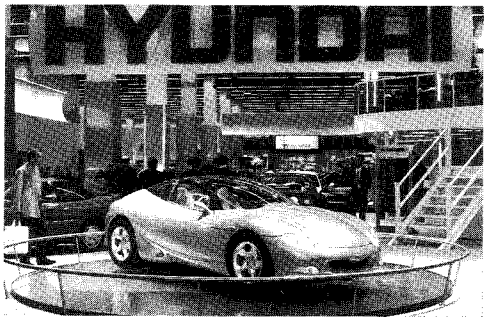
동문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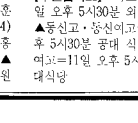
목포 향우회

【서울캠퍼스】◀ 출약·휘경고=12일 오후 6시 체대앞 녹원 ▲서석고=13일 오후 5시 체대앞 녹원 ▲중실·숭의고=10일 오후 6시 아마데우스 ▲용산고=12일 오후 6시 수화장 ▲충무향우회=12일 오후 6시 복래관

【수원캠퍼스】▲목포향우회=9일 오후 5시30분 외대 돌다방 ▲동신고·동선이고=10일 오후 5시30분 공대 식당 ▲춘천여고=11일 오후 5시 30분 공대식당

도쿄에서 디트로이트로…다시 프랑크푸르트로!





해외사업부 수출상품계획팀
조 용 정

"그곳에선 세계 자동차들의 올림픽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도쿄, 디트로이트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자동차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수 있었습니다.

세계 자동차들과 당당하게 겨루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자랑스런 모습까지도.
세계적인 자동차회사의 수출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준
세계 3대 모터쇼!

높은 급여, 복리후생 다 좋지만
큰회사에서 생활하고 있다는것
그것이 얼마나 큰무가가치가 있는가를
깨닫게 해준 멋진 기회였습니다.
입사 3년차의 사원에게 이런 기회와
도전에의 의욕을 불러 일으키게 해준
나의 회사, 현대자동차.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차
현대자동차